

# 창덕궁의 풍수지리적 입지분석 연구\*

박 재 희\*\* · 김 기 덕\*\*\*

## 목차

- I. 머리말
- II. 창덕궁의 산계(山系) 및 수계(水系)
- III. 창덕궁의 풍수지리적 입지
- IV. 주요전각의 풍수적 입지특성
- V. 맺음말

## I. 머리말

전근대 시대의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입지선정 및 공간구성에 있어서 풍수적 논리가 전개되었다. 그중 최고의 통치자인 왕과 왕비가 기거하는 동시에 중요 정치공간이었던 궁궐은 가장 대표적으로 풍수적 입지선정 및 공간배치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궁궐풍수의 입지에 대한 고찰은 고려시대 개경 궁궐에는 이병도,<sup>1)</sup> 김기덕,<sup>2)</sup> 장지연<sup>3)</sup>의 연구가 있으며, 강도 궁궐에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4S1A3A2044638)

\*\* 제1저자.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대한 풍수적 고찰로는 강화의 이궁·별궁을 설명한 최원석<sup>4)</sup>과, 강도 궁궐의 입지를 다룬 김기덕<sup>5)</sup>의 연구가 있다. 조선궁궐의 풍수적 입지와 경복궁 및 창덕궁에 대한 연구는 강환웅<sup>6)</sup>, 서문중<sup>7)</sup>, 조남선<sup>8)</sup>, 지중학<sup>9)</sup>, 박정해<sup>10)</sup>가 있다. 그 외 궁궐인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에 대해서는 아직 고찰되지 않았다.

본 글은 서울의 5대 궁궐 중의 하나로 건립 당시 이궁의 목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궁 이상으로 사용되었던 창덕궁의 풍수지리적 입지와 주요전각의 입지를 분석한 것이다. 창덕궁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 형기론에 의한 용맥의 흐름정도와 이기론에 의한 좌향 관계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입지에 대한 평가는 대조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논자는 논문 구성 및 논리적 제시에 있어 형기론에 입각한 지형적 특성을 내룡맥세, 국세, 풍수세, 혈장세별로 세밀한 분석을 통한 차별화를 시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에 대한 증거요인과 더불어 주요전각이 사신사의 조건을 갖추어 혈장을 이루고 있는지를

- 
- 1)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재판, 아세아문화사, 1946, 1980.
  - 2) 김기덕, 「고려시대 개경의 풍수지리적 고찰」, 『한국사상사학』 17, 2001; 「고려시대 개경과 서경의 풍수지리적 고찰」, 『한국사연구』 127, 2004.
  - 3) 장지연, 「고려, 조선초 국도풍수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 4) 최원석, 『왕도풍수』, 신편 강화사 中(문화와 사상), 2003.
  - 5) 김기덕, 「고려시대 강도 궁궐의 풍수지리적 고찰」, 『한국중세사연구』 제31호, 2011.
  - 6) 강환웅, 「조선초기의 풍수지리사상연구」, 세종대 박사학위 논문, 2003.
  - 7) 서문중, 「서울의 지세와 궁궐 입지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연구」, 한성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8) 조남선, 「창덕궁의 풍수지리적 입지에 관한 연구」, 대구한대 석사학위논문, 2005.
  - 9) 지중학, 「경복궁·청와대 입지의 비판적 분석과 대안모색에 관한 연구」, 광운대 석사학위논문, 2010.
  - 10) 박정해, 「경복궁의 입지환경에 대한 풍수적 논의와 해석」,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4 「창덕궁의 역사적 전개와 전통입지과정」, 『국학연구』 24, 2013.

확인하고자 한다. 내룡맥세는 혈장(穴場)<sup>11)</sup>에 입력되는 산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며, 국세는 혈 주위의 모든 사신사(四神砂)인 현무, 안산, 청룡, 백호에 해당되는 산과 언덕의 흐름을 보는 것이다. 풍수세(風水勢)는 바람과 물의 흐름을 보는 것인데, 이는 득수와 득과를 분별하고 풍수의 기본원리인 바람과 물이 조화를 이뤄 지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기틀이 된다. 혈장세(穴場勢)는 내룡맥세에 의해 입력되는 용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용맥(龍脈)<sup>12)</sup>의 흐름 및 주변 국세(局勢)<sup>13)</sup>의 검토, 그리고 혈장(穴場)에 대한 검토에 있어, 관산을 통해 실측한 자료를 근거로 하되 그것을 네이버 위성지도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 5,000 등고선지도에 용맥의 흐름을 기재하여 객관성을 높였다. 그리고 창덕궁 입지 외에 전각 위치에 대한 풍수적 해석도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논지 전개는 창덕궁의 산계 및 수계에 대해 전체적인 지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풍수적 입지 및 주요전각의 입지특성에 대한 주요 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형의 변화여부도 고려하였으나 도심개발 및 훼손에 따른 주 용맥의 흐름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풍수이론 및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기론에서 제시하는 자연법칙을 수학적 형식으로 체계를 갖춘 황영웅의 에너지장론<sup>14)</sup>을 참조하였다.

11) 혈장은 살아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의 중심 터나, 묘터를 말하며, 地氣가 응축되어 안정된 땅이다. 穴 또는 穴板, 穴處의 명칭으로도 사용한다.

12) 용맥은 용과 맥을 함께 이르는 말로써, 일반적 용어인 산맥을 지칭한다.

13) 혈장 주변 산들의 높낮이, 크고 작음 등의 짜임새를 말한다.

14) 황영웅, 『풍수원리강론』, 동국비전, 2004.

## II. 창덕궁의 산계(山系) 및 수계(水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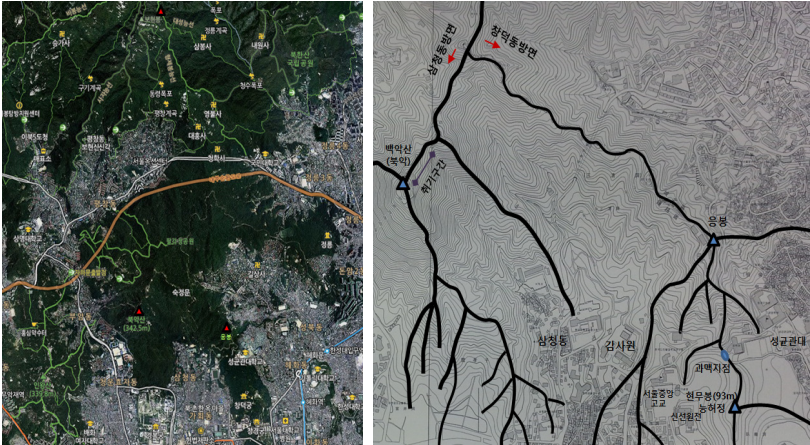
〈그림 1〉 창덕궁 위성지도

창덕궁은 서울도심의 중심지인 종로구 율곡로99(와룡동 2-71)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창덕궁이 434,877m<sup>2</sup>이며, 바로 옆 창경궁은 218,148m<sup>2</sup>이다. 두 궁궐을 합친 총 면적은 653,025m<sup>2</sup>이다.<sup>15)</sup> 창덕궁의 전체적인 지세는 동서보다 남북이 세장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보다는 서쪽이 높고(西高東低形), 남쪽보다 북쪽이 높은(北高南低形) 형상을 이루고 있다.<sup>16)</sup>

15) 창덕궁과 창경궁의 면적 653,025m<sup>2</sup>와 종묘 면적(194,331m<sup>2</sup>)을 합한 총 면적(847,356m<sup>2</sup>)은 중국 북경의 자금성(고궁) 면적 약 720,000m<sup>2</sup>보다 넓다.

16) 문화재청, 『창덕궁-종묘 원유 조사』, 2002, 41쪽.

## 1. 창덕궁의 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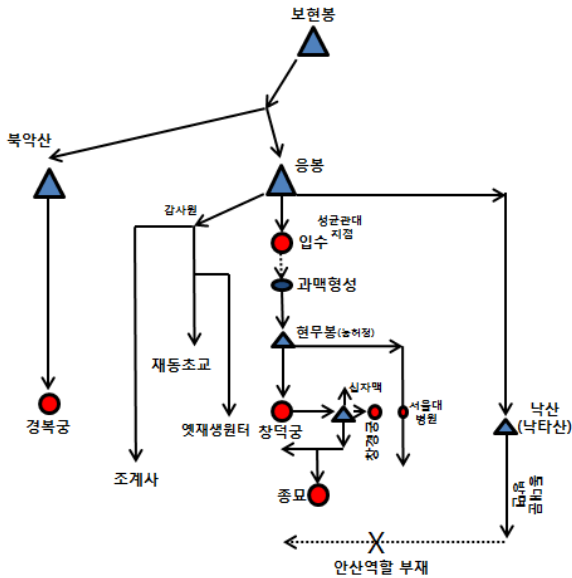


〈그림 2〉 수도 서울의 위성사진 및 용맥 흐름도

서울은 백두대간의 분수령인 한북정맥과 연하여 있다. 서울은 한북정맥이 백운산(904m), 운악산(936m)을 지나 포천에서 의정부에 닿아 축석고개를 넘어 도봉산(740m)과 북한산(삼각산)(837m)으로 이어진다. 북한산은 서울(한양)의 진산으로 주맥이 보현봉으로 내려와 한양도성에 이르러 내맥의 가지들이 분벽(分壁)<sup>17)</sup>되어 나뉘지는데, 제일 상단의 좌측 산맥이 정릉방향으로 내려가며, 그 다음 가지에서 좌, 우로 또다시 분벽되어 이중 우측맥이 삼청동 방향으로 뻗어 네번에 걸쳐 기운을 모으려는 움직임(취기과정)을 거치면서 정맥이 되는데 그 이후 우뚝 솟은 곳이 바로 백악산(북악)(342m)이며, 좌측맥이 응봉(매봉)(186m)을 주산으로 하여 뻗어 나온 산줄기 자락이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림 2참조) 아울러 한강 넘어 북악산을 마주보고 있는 안산은 관악산(632m)이다. 한

17) 분벽이란 용맥이 진행하다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 안정각을 형성하며 나뉘어지는 작은 현상이다.

남정맥의 지말단인 관악산에서 마주하는 백악산과 그 진산인 북한산의 주변 국세(外局勢)에 의해 산세 형성을 마무리 하여 좌로는 삼성산<sup>18)</sup>을 통하여 영등포 당산동에 이르고 우로는 우면산<sup>19)</sup>을 통하여 강남 탄천 종착지에 이르며 중앙으로는 봉천동 까치산 고개를 넘어 흑석동에 이르는 곳이 국립서울현충원 자리이다.<sup>20)</sup>



〈그림 3〉 창덕궁 용맥 체계도

응봉의 좌측에서 이어진 낙타산(낙산 125m)줄기는 서울국제고교를 지나 옛 한양도성의 좌청룡을 이루며 동대문에 이르러 멈추게 된다. 주용맥

18)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걸쳐 위치한 산.

19) 서초구와 과천시 하동경계에 있는 산.

20) 박재희·황영웅, 「국립서울현충원의 풍수지리적 고찰」, 『중앙사론』 제41집, 2015, 94쪽.

은 능허정 방면으로 내려와 다시 분벽을 하는데 그 중 좌측으로 뺀 맥은 동남쪽으로 이어져 내려와 연경당, 농수정, 애련정의 좌청룡역할을 하며 감싸 안았고 우측으로 뺀 맥은 창덕궁의 본 맥이 된다.

응봉의 우측맥은 삼청동 방면의 감사원으로 내려와 두번에 걸친 분벽을 통하여 조계사, 재동초등학교, 옛재생원터 방면으로 용맥이 흘러가면서 창덕궁의 외백호 역할을 한다.

상기 용맥흐름의 특성을 살펴보면 창덕궁이 위치한 곳은 보현봉 좌출맥에서 내려온 용맥으로 다시 좌우출맥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중 좌출맥으로 내려와 성균관대 입수점 위, 수려한 바위로 응축되어 만들어 놓은 봉우리가 창덕궁의 주산이 되는 응봉이다. 그럼에도 북악으로 향한 우출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운으로 작용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선행연구<sup>21)</sup>에서는 그 근거로 “첫째, 응봉에서 크게 세줄기로 나누어진 산줄기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나뉘어져 일차적으로 힘이 분산되었으며, 둘째 현무봉을 기봉한 이후 행릉을 하면서 여러개의 요도(橈棹)<sup>22)</sup>성향의 지각(支脚)<sup>23)</sup>을 만들면서 생기가 흩어졌음을 들었다.”

그 외 주요근거를 들자면 첫째, 응봉에서 본 맥이 내려와 성균관대 지점에서 입수점과 안대바위를 만들면서 과맥(過脈)<sup>24)</sup>을 크게 형성하게 되었고 다시 이어져서 창덕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과맥에 따른 용맥의 기운이 많이 상쇄되었다. 과맥이 아닌 과협처(過峽處)<sup>25)</sup>로 볼 수도 있으나 이

21) 조남선 앞의 논문, 2005, 25쪽.

22) 요도는 本身龍(來龍脈, 主龍脈, 來脈)으로 혈장을 형성한 주된 산맥을 말함)의 진행방향 變位와 본신룡의 생기를 增加시켜 주는 보조적인 反에너지 공급맥이다.

23) 지각은 本身龍이나 보조적 용맥의 진행방향을 변위시키지 않고 안정적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용맥이다.

24) 과맥은 용맥의 氣運(에너지)이 흐르다 쉬기 위해 기복의 리듬 없이 주저앉아 쉬고 있는 통로지역이다.

25) 과협처는 용맥의 氣運이 흐르는 과정에 있어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복에 의해

미 해당지점에 혈자리를 만들고 행룡하여 올라 갔기 때문에 과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하나의 맥으로 들어와 응축되어야 하나 성균관대 지점에서 이미 혈자리를 만들어 놓은데다 중심맥이 아닌 청룡선익(蟬翼)<sup>26)</sup>으로 용맥이 이어졌다. 더욱이 청룡 안대를 만들어 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창덕궁으로 내려가는 용맥의 용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응봉의 좌측에서 내려간 낙산의 外 좌출맥에 의한 종로5가(동대문 방면)와 신설동으로 빠져나가는 자리에 주작(안산)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는 응축을 제대로 해주는 안대역할의 부재로 ① 좌출맥의 용량이 약하며 ② 좌출맥 방면에서 우출맥을 도와줄 외산도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맥의 역량은 많이 상쇄되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창덕궁 으로 향한 내 좌출맥은 능허정 바로 위쪽에 기력을 다해 93m의 봉우리(현무봉)를 만들고 그 정상을 중심으로 동측과 남측으로 분벽을 하여 동쪽방면(좌측)가지는 후원을 중심으로 감싸 안았으며, 본맥은 주합루방면으로 요도성향을 띤 지각을 뺀으며 다시 세계의 연결된 맥으로 분벽한다. 하나는 동쪽으로 내려가 창경궁 쪽으로 내려가며, 동남쪽의 대조전 후면도 같이 이루게 된다. 우측맥은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방면으로 짧은 지룡을 내리고 있으며, 가운데 남쪽으로 내려오는 용맥은 인정전을 향하게 된다. 동쪽으로 향한 창경궁 방면의 주맥은 일자문성사(一字文星砂)<sup>27)</sup>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열십자(十)모양의 십자맥으로 뺀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우측맥은 창덕궁의 외청룡과 보조적 안대 역할을 하며 주맥은 종묘로 향해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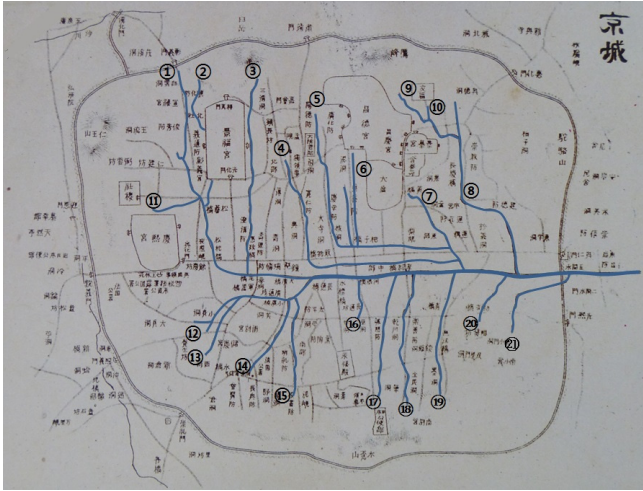
---

잘록한 모양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26) 청룡선익은 혈장의 좌측용맥 중 조금 높은 부분으로 그 모습이 매미 날개와 비슷하게 생겼다하여 선익이라 부른다.

27) 일자문성사는 산의 모습이 한 一字와 같이 생겼다하여 일컫는 말이다. 오행산형 중 역량이 가장 큰 산의 생김새를 말한다.

## 2. 창덕궁의 수계



- |           |        |        |         |        |        |
|-----------|--------|--------|---------|--------|--------|
| ① 백운동천    | ② 만리퇴  | ③ 삼청동천 | ④ 원동천   | ⑤ 계생동천 | ⑥ 북영천  |
| ⑦ 창경궁 유류천 | ⑧ 흥덕동천 | ⑨ 서반천  | ⑩ 동만천   | ⑪ 사직동천 |        |
| ⑫ 백운동수    | ⑬ 창동천  | ⑭ 장흥동수 | ⑮ 남산동천  | ⑯ 리전동수 | ⑰ 주자동천 |
| ⑱ 필동천     | ⑲ 목사동천 | ⑳ 쌍리동천 | ㉑ 남소문동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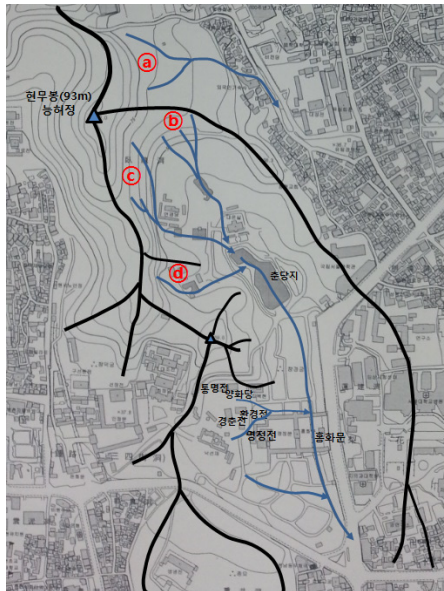
〈그림 4〉 조선여지도(1894)에 표기한 수계 흐름도

통상적으로 수계를 살피는 것은 산이 시작되는 곳에 물이 일어나며 용이 머무는 곳에 혈의 맺음을 확인할 수 있어 물의 경계를 보는 것이다. 아무리 거대한 산이 활개를 치며 밀고 내려 오더라도 물을 만나면 그 기세를 멈춰 세우며, 거센 흐름을 보이는 물살도 산을 만나면 스스로 몸을 낮추어 산맥을 따라 흘러 내려가기 마련인 것이다.<sup>28)</sup> 이를 근간으로 본 서울(한양도성) 수계(수세)를 살펴보면, 북악의 우측 청운동 계곡인 ① 백운동천과

28)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맥은 물을 만나면 멈춘다. 『청오경(靑烏經)』, “氣乘風散 脉遇水止”;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이 경계를 지으면 멈춘다. 『장서(葬書)』,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장성규, 김혜정 역, 『완역 풍수경전』, 문예원, 2010, 144쪽, 229쪽.

② 만리퇴에서 발원하는 청계천 물길을 중심으로 좌우 산 아래에서 흐르는 명당수를 만나는데, 백악산의 우측으로 뻗은 용맥이 발달한 관계로 인왕산과 남산이 환포하고 있어 그 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물길(청계천)이 형성되어 길게 관통하여 흐르며 동대문과 광희문 사이를 빠져 왕십리와 답십리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가는 형국을 하고 있다.

청계천과 만나는 물길 중에 창덕궁의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내려온 주능선의 지형적 흐름과 연계한 내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창덕궁의 수계를 알 수 있다. 창덕궁은 주능선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과 서쪽 방면으로 나뉜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좌측 외수로는 ⑦ 창경궁 옥류천이 흐르며 우측 외수는 응봉에서 발원한 ⑥ 북영천이 창덕궁 금호문 안쪽의 금천교를 통과하여 종묘를 지나 창경궁 옥류천과 합류한 다음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림 5〉 창덕궁 동측 수체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쪽방면의 물줄기는 주로 후원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체계로 창덕궁의 치조나 내조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물줄기로 크게 네 개의 골에서 형성되었다. 첫째는 ㉑ 최 북측에 위치한 청의정 상단 골과 취한정 좌측골이 만나 ㉒ 흥덕동천과 합류하여 청계천으로 내려가므로 창덕궁과 창경궁의 외명당수 상류로서 역할은 하지 못한다. 이는 창덕궁 옥류천이 실제 지형의 자연수계에서는 현무봉 좌측 용맥을 넘어 춘당지의 수원으로 유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㉓ 존덕지 상단의 취규정 좌우측 두개의 계곡수와 관람지에서 만나는 좌측 골(능허정 정상 봉우리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의 물줄기를 만나 창경궁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다. 세 번째는 ㉔ 능허정과 주막의 능선사이에서 발원한 물이 빙천쪽으로 내려와 연경당으로 이어지는 물줄기와 연경당 좌측의 골에서 흐르는 물과 합류되어 애련지로 모이는 수체계로 이 또한 창경궁으로 흘러간다. 네 번째는 ㉕ 주합루 상측에서 부용지로 흘러 영화당 아래쪽 개거수로 통하여 창경궁으로 흘러간다. 즉 동쪽방면의 물줄기 ㉓ ㉔ ㉕는 후원지역과 창경궁의 치조와 내조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창경궁 옥류천의 수체계이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옥류천 수계를 구분없이 설명하였으나 ㉑는 창덕궁 옥류천 권역으로 수계의 흐름은 흥덕동천과 합류하며, 창경궁의 옥류천은 창덕궁 후원의 ㉓ ㉔ ㉕ 계수가 합쳐 흐르는 수계이다. 명칭은 같으나 각기 다른 옥류천 수체계를 하고 있다.



〈그림 6〉 창덕궁 서측 수체계

서쪽방면의 물줄기 ㉔ 북영천은 창덕궁으로 내려오는 용맥의 우측 골짜기의 물줄기들이 합류하여 내려오다 창덕궁의 치조와 내조지역의 명당수와 연계되는 체계로 이루어진다. ㉕ 첫 발원지는 창덕궁 북쪽 상단 응봉의 아래 과맥지점을 지난 우측 아랫줄기의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들로 ㉖ 신선원전(대보단이 위치하던 곳)의 좌측으로 모여 내려오다가 ㉗ 서울중앙고등학교로 내려온 나즈막한 능선의 좌측상단부와 맞닿은 신선원전 우측 담장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와 합류한다. 합수된 물은 창덕궁 담장밖으로 흐르면서 창덕궁 주맥의 능선에서 흘러내려오는 ㉘ 세개의 계곡수와 차례로 합류한다. 합류된 물줄기는 다시 ㉙ 창덕궁 담장 안으로 흐르면서 ㉚ 경추문 부문에서 창덕궁 주맥의 계곡수와 합류하여 인정전 옆 구선원전과 규장각 사이를 지난 후 금천교를 거쳐 돈화문 동쪽을 지나 종묘쪽으로 흘러간다. ㉛ 창덕궁의 치조와 내조지역의 명당수는 인정전의 외백호와 안대가 감싸 안은 안쪽으로 감아 돌아 서쪽방면의 물줄기와 합류한다. 즉, 대조전 좌, 우측 골에서 발원하는 두 개의 물줄기가 회정당 사이를 두고 내려와 숙장문 안쪽에서 합류한 다음 인정문 앞을 가로질러 금천교에서 창덕궁 북쪽 상단 응봉의 골에서 발원한 물과 합류하여 돈화문 옆을 지나 돈화문로 대로변을 따라 청계천으로 흘러간다. 아울러 ㉜ 궐내 내청룡에서 발달한 안대가 끝까지 발달하지 못하여 완벽한 관쇄를 이루지 않다 보니 인정전을 180도 이상 완전히 감아 돌지를 못하였고, ㉝ 외백호 또한 가까이 형성되지 않아 금천교에서 합류한 물줄기가 종묘로 향한 산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 인정전 터의 혈장기운이 일부 쇠하는 것이 단점으로 보인다. 또한 대조전 우측골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선정전자리를 관통하고 있어 선정전 터는 입지처로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 창덕궁 평면도 (제작 추정연도 좌:1911년, 우: 1936년) 29)

『동궐도』<sup>30)</sup> 이후 작성된 『동궐도형』(19세기말 추정)과 근현대에 작성된 창덕궁 평면도에 묘사된 대보단과 북영(北營)주변의 수계와 배수체계의 변형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1936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창덕궁 평면도』작성 시점부터 신선원전 외삼문에서 의풍각 부근까지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주거지 형성과 도로개설 등으로 어구멸실이 진행되어 하수관거의 교란 및 단절양상을 보이며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sup>31)</sup> 이에 상기 수체계의 흐름설명은 시대적 변천에 따른 어구멸실 등의 단절현상을 배제한 용맥흐름상의 실질적 수계흐름도를 예측하여 선행연구<sup>32)</sup> 33) 34)에서 언급한 창덕궁의 동측과 서측의 전체 수체계의 흐름을 재작성하였다.

29) 진용미, 『창덕궁 후원의 배수체계 특성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2014, 84쪽.

30) 동궐도 제작시기는 1824년 경복전이 소실된 후부터 1828년 연경당이 건립되기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한다.; 두산백과.

31) 진용미 앞의 논문, 2014, 84-86쪽.

32) 문화재청 앞의 책, 2002, 42-43쪽.

33) 조남선 앞의 논문, 2005, 38-41쪽.

34) 진용미 앞의 논문, 2014, 54-56쪽.

### III. 창덕궁의 풍수지리적 입지

창덕궁에 대한 선행연구<sup>35)</sup>의 풍수지리적 입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에 주요전각이 사신사의 조건을 갖추어 혈장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와 평가결과에 있어 그에 해당되는 증거요인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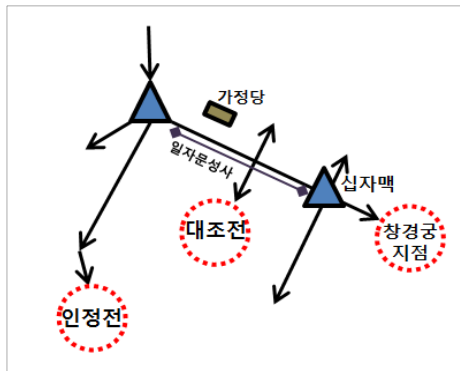
〈표 1〉 선행연구의 창덕궁 풍수입지에 대한 평가

구분	긍정적 평가 (박정해)	부정적 평가 (조남선)	비 고 (확인사항)
주산 (응봉)	·응봉의 형상은 무곡(武曲) 금성체로 주산의 형상과 부합한다. <sup>36)</sup>	·응봉의 용맥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기운이 약하다.	주산(응봉)의 창덕궁에 미치는 영향력 <sup>37)</sup>
청룡	-	·청룡의 끝이 관쇄되지 않았다.	청룡의 관쇄
백호	-	·인정전의 내백호가 일직선 형태로 뻗어서 관쇄되지 않았다. ·인정전의 주룡이 내전의 위치에서 백호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대조전의 백호 끝이 관쇄되지 않는다.	백호의 관쇄
안산	·창덕궁의 좌청룡이자 종묘의 주맥이 창덕궁의 안산에 해당한다.	·창덕궁의 주요 전각(인정전 대조전)에는 안산으로 취할 사격이 없다.	안산 존재유무와 견해차 <sup>38)</sup>
지세	·대조전 터는 사격을 갖춰 장풍이 잘 이뤄지는 보국을 가졌다. ·대조전은 주룡에서 횡룡입수한 용의 지기를 전달받는 곳에 입지한다. ·인정전 입지특성에 혈치 요인이 일부 존재함. <sup>39)</sup>	·궁궐 전체적으로 보국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그 규모도 작다. ·인정전은 혈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응봉의 주룡은 인정전을 향해 행룡하지 않으며 좌우 청백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다.	주요전각의 입지특성 (사신사 조건 충족)
수세	·침전영역에서 흘러나온 내수로 인해 음양교배는 이뤄진다.	·전체적으로 수구가 관쇄되지 않았다. ·외수가 각 전각과 음양교합을 하지 않고 흘러간다.	창덕궁 내, 외수의 수체계

35) 창덕궁 풍수입지에 대한 선행연구자는 조남선, 박정해가 있다.



인정전과 창경궁으로 향한 용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⑥두번째, 남쪽으로 내려온 용맥이 바로 혈터를 만드는데 이곳이 바로 인정전이다. ⑦세번째로 그 중 가장 힘이 많이 받은 주룡맥은 동남쪽을 향하여 두터운 용맥을 만들며 일자문성사의 형태를 이루고 십자형태의 맥으로 뺏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맥이 혈장을 만들 때 순차적으로 좌, 우가지를 뺏으며 균형을 잡는 행로를 갖추는데, 본 맥에서는 그 이상의 안정적 균형을 이루다 보니 좌, 우의 가지들이 동시에 열십자모양의 형태를 이루면서 일정한 용량의 주맥 기운이 안배를 이루며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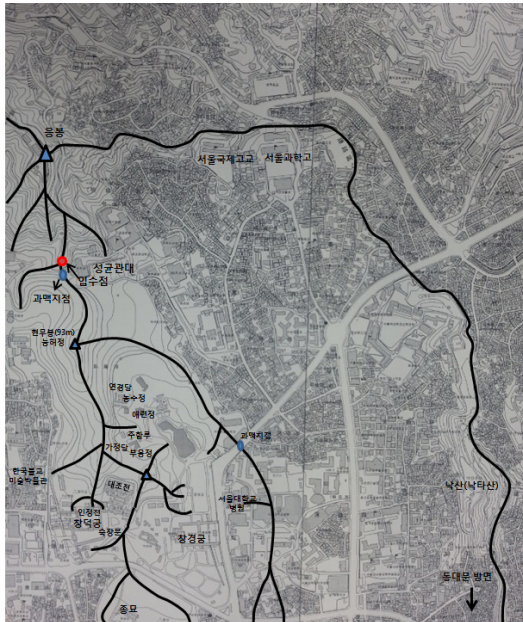
〈그림 9〉 대조전 주변 용맥 체계도

일자문성사 형태의 바로 아래 자리잡은 곳이 대조전의 터가 위치한 곳이며, 그 아래에 췌내각사가 자리잡고 있다. 그 반대쪽은 부용정이 위치하고 있다. 즉, 창덕궁으로 들어온 용맥은 가정당 바로위에서 좌출맥과 우출맥 그리고 그 가운데로 중출맥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령 그 기운 자체는 현무봉을 형성하기 전 많이 상쇄되었다고 하나 그 맥 자체는 반듯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전 자리가 하나의 터를 형성하기엔 가능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룡이 약하게 감았기 때문에 기세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인정전으로 내려온 용맥과 달리 내전은 상대적으로 강한 기운의 용맥에서 분벽 되어 동남쪽(좌출맥)으로 뻗은 일자맥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큰 과맥 없이 반듯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용맥의 기운 손실이 적어 궁궐이나 집터로서 가능한 곳으로 판단 할 수 있다.

## 2. 창덕궁의 청룡<sup>42)</sup>



〈그림 10〉 창덕궁 내·외청룡 흐름도

42) 혈의 뒤쪽 내맥에서 왼쪽으로 가지를 뻗은 산으로 혈을 감싸 안아 應氣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성을 가져야 청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혈관 내의 청룡이 내청룡이 되며, 청룡을 기준으로 바깥쪽의 산맥들을 외청룡이라 한다.

창덕궁은 크게 세계의 내·외청룡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덕궁 궁궐의 보국<sup>43)</sup>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주 용맥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내청룡과 그 바깥쪽을 보호하는 두개의 외청룡이 포진되어 있다. 창덕궁의 주룡이 가정당 바로 위에서 좌출맥으로 뻗어 일자문성사 형태로 진행하다 대조전 뒤로 원을 그리며 감아 둔 다음 숙장문 못미처 분벽을 하여 본맥은 종묘로 내려가고 다른 한 맥은 인정문 앞을 지나 안대를 형성하는 지점까지 내려와 창덕궁의 내전위치에 사신사체계를 갖추게 된다.

청룡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쪽으로 물이 흘러야 하는데 실질적 지형적 수체계 특성과 달리 현재는 물이 흐리지 않고 있다. ‘동궐도’에 그려진 형태를 보아도 수체계의 흔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는 궁궐터를 넓히기 위한 인위적 터 공사로 인하여 복개시설을 비롯 내수의 좌, 우 계곡수 흐름을 차단하고 궁궐내 건축물을 세우는데 기인했다고 본다. 혈장의 기초수이자 명당수는 흘러야 되며 더욱이 청룡이 관쇄를 하여 물을 가두고 내보내야 하는데 본맥의 청룡기운이 종묘방향으로 가는 기운으로 말미암아 내청룡이 완벽히 감아돌지 못하였다. 다만 중심축을 기준으로 180도 가까이 감아 어느정도 관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관쇄적 역할이 보다 충실하였다면 창덕궁의 청룡뿐만 아니라 인정전의 안산으로 충분하여 굽이 멀리 떨어진 남산을 조산으로 두지 않고 안대로 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안산의 원근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에 기인한다.<sup>44)</sup>

---

43) 保局은 혈 주위의 모든 砂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며, 혈관을 응기하는 형세를 갖추고 있어야 좋은 국이라 할 수 있다.

44) 중국 오대(五代)의 『동림조담(洞林照膽)』에서 “안산은 세가 가까운 곳을 귀하게 여기니 가깝지 않으면 안된다.”; 범월봉(양형석, 홍성서 역), 『작맥부·동림조담 역해』, 한국학술정보, 2013, 183쪽 “案山 勢貴近…則力微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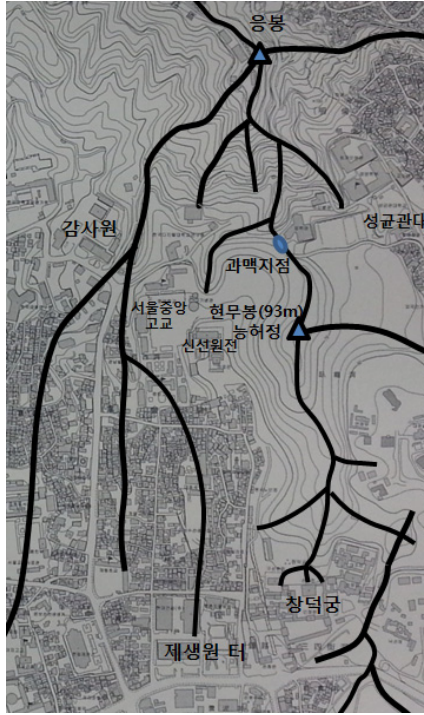
즉, 청룡관쇄의 부족함으로 인해 인정전의 안대는 남산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창덕궁의 안산’에서 기술토록 하겠다.

이와 반대로 종묘방향으로 내려간 본택의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종묘는 본택에 붙어 청백이 같이 형성되어 있는데다 백호보다 청룡이 더 발달되어 도성의 지형적 수체계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청룡 물을 어느 정도 거수하고 있으며 사신사체계를 갖춘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두개의 외청룡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쪽의 청룡은 응봉의 좌측에서 이어진 것으로 동측의 서울국제고와 서울과학고를 지나 한양도성 전체의 좌청룡을 이루며 최대 125m(낙산) 높이의 능선으로 길게 남쪽까지 뻗어 동대문이 있는 지점까지 내려온다. 또 하나의 외청룡은 내룡맥과 낙산 사이에 있는 용맥으로 그 시발점은 능허정 바로 위 현무봉에서 분벽한 또 하나의 좌출맥으로 동남쪽으로 이어져 내려와 연경당, 농수정, 애련정의 좌청룡역할을 하며, 본택이 더 내려가면 창경궁의 외청룡이자 안대의 위치적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쇄적 역할을 수행치 못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있는 곳을 지나 낙산과 마찬가지로 청계천에 연하여 일자로 흘러가는 형세를 하고 만다.<sup>45)</sup> 이 능선 역시 바깥쪽 첫번째 외청룡과 마찬가지로 창덕궁과 창경궁의 외청룡이지만 두 궁궐을 감싸 안아주는 관쇄적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국의 역할로써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45) 청룡은 길게 뻗은 모양이 살아 움직임을 보여야 하며, 만약 지나치게 우뚝 솟아 붙겨 보이면 완영한 것이아니다. 가지가 청룡과 백호로 된 것은, 와서 머문 흔적이 언덕과 둔덕에 나타나는데, 팔을 두른것 같으면 그것을 일러 둘러 감쌌다고 한다. 『장서(葬書)』, “靑龍蜿蜒 夫以支爲龍虎者, 來止跡乎岡阜, 要如肘臂謂之環抱”; 장성규, 김혜정 역 앞의 책, 2010, 282-284쪽.

### 3. 창덕궁의 백호(46)



〈그림 11〉 창덕궁 내·외백호 흐름도

창덕궁의 외백호는 인정전을 중심으로 서쪽방면의 능선을 말하는데, 그 중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백호는 주룡 및 인정전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능선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봉에서 본맥이 내려와 성균관대 지점에서 입수점과 안대바위를 만들

46) 혈의 뒤쪽 내맥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를 뺀 산을 말하며, 청룡과 달리 고개를 숙이고 순하게 흘러 혈에 응기하여 감싸 안아야 백호로써의 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혈관 내의 백호가 내백호가 되며, 백호를 기준으로 바깥쪽의 산맥들을 외백호라 한다.

면서 과맥을 크게 형성하게 된다. 안대바위를 형성한 청룡선익에서 다시 발달한 주 용맥은 능허정 바로 위쪽에 현무봉의 봉우리를 만들며 창덕궁 방면으로 내려가며 다른 한 가지가 우측의 남서방향으로 내려가는 외백호의 능선으로 신선원전 뒤에서 낮게 행룡을 하며 이후 남쪽 아래로 향해 내려가나 큰 힘을 발휘치 못하고 그 기운을 다하나 창덕궁 우측 수계의 흐름에는 영향을 미친다. 응봉의 우측맥으로 분벽한 또다른 외백호 능선은 감사원 지점에서 두개의 가지로 분벽하며 우측맥은 조계사 방면으로 길게 내려가고 좌측으로 향한 용맥은 서울중앙고 우측 상단지점에서 다시 금 두개로 분벽하여 좌측맥은 재동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우측맥은 옛 제생원터(종로구 계동 140-2)인 돈화문 근처에서 낮게 고개를 숙이면서 방향을 동남쪽으로 약간 튼다. 종묘로 내려가는 주룡과 가까이 접해서는 수구(水口)<sup>47)</sup>를 좁혀 보국 내, 명당수가 급히 빠져 나가지 않는 형세를 그나마 취하고 있다. 그러나 창경궁의 외청룡과 마찬가지로 일직선의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원만한 길격의 보국을 만들지 못하므로 안대로서의 역할은 더욱이 바랄 수 없다.

다만, 앞전에 설명한 외백호를 포함한 서쪽에 자리잡은 모든 외백호들과 북악의 영향력이 나쁘지는 않다. 이는 창덕궁 중심축에서 서쪽방면의 백호 어깨측 부분이 들려서 높게 형성되지 않고<sup>48)</sup> 창덕궁 방향으로 약하게나마 꺾여 들어온 외백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창덕궁의 사(砂)로서만 존재할 수 있어 길격의 보국을 만들지는 못하였더라도 백호의 귀한 귀사로의 작용은 가능하다.

47) 수구는 땅의 귀천, 역량의 대소가 모두 수구와 관련 있어, 수구가 벌어져 있으면 그 공간을 통해 바람이 드나들어 기가 흩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청룡과 백호가 交鎖(關鎖)를 이루어야 한다. 김두규, 『풍수학대사전』, 비봉출판사, 2005, 289쪽.

48) 백호는 순하게 숙여야 한다. 형세가 이와 반대이면, 응당 망하고 죽게되는 법이다. 『장서(葬書)』, “白虎馴順 形勢反此 法當破死”, 장성규·김혜정 역 앞의 책, 2010, 282-283쪽.

#### 4. 창덕궁의 안산<sup>49)</sup>



〈그림 12〉 창덕궁 안산

창덕궁은 범궁인 경복궁과 달리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나열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 전각의 방향에 따라 안산(안대)의 위치를 정하여 다르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조와 내조, 치조의 건물을 지을 때 전체 궁궐의 안산이 될 수 있는 중심점과 각각의 건물의 방향을 정할 때 정확한 위치선정을 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창덕궁의 입지에서 궁궐을 짓기 위한 중심의 축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현무와 마주하는 안산을 찾아 그 중심선상에 궁궐을 대표하는 건물이 들어서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 수구의 청, 백이 만나는 돈화문 방향을 살펴보면 안산으로 취할 사격이 전혀 보이지 않을뿐더러<sup>50)</sup> 궁궐건축에 있어 남향을 절대적으로 중

49) 혈장과 일직선상으로 마주보는 앞쪽 산을 일컬어 주작(朱雀)이라 하며, 그 중에서 혈에 가깝고 낮은 안정된 산이 안산이 되며 혈에서 멀고 높은 산을 조산(朝山)이라 한다. 즉, 혈장을 정면에서 감싸 옹기 및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시켰기 때문에 현무봉의 북쪽 방향에서 바로 내려온 용맥을 찾고 이와 마주하는 곳을 안산으로 정했을 것이다. 즉, 인정전으로 내려온 용맥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남산이 안산이 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청룡의 끝 쪽을 혈에서 가까운 낮은 산으로 보고 안산으로 정할 수도 있다. 청룡으로서 주 역할과 혈장의 기운을 응축하는 주된 기능으로서 인정전의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감아들지 못하여 주 기능인 청룡의 관쇄적 기능이 다소 부족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대의 기능까지 하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뒤로 인정전에서 바라보면 일직선상에 남산(현, 한옥마을 위치)이 위치하여 조산으로서 그리고 안산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어 마주하고 있다.

순조 4년 창덕궁 재건 시 대제학 이만수의 『인정전상량문』<sup>51)</sup> 궁궐지 기록에서도 인정전이 인경봉(남산)을 바라보고 신숭봉(웅봉)을 등지고 있다 하여 안산을 남산으로 지목하고 있다. 문제는 남산의 어느 위치가 현무봉과 상호작용하여 혈장을 정면에서 감싸 응기 및 보호하여 안정이 되어 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안산의 기운이 출렁이며 용맥이 오다가 꺾어지면 단절이 되고, 반대로 용맥이 오다가 솟아오르면 용맥이 길한 것으로 보는데, 오다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흉살이 들어 용맥이 단혀 버린다.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고 출렁이며 오는 안산은 그 기운자체가 1/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정지와 밀고 있는 기운의 차이로 즉, 백타로 정지했을 때의 에너지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sup>52)</sup>

50) 조남선 앞의 논문, 2005, 34쪽.

51) “(중략) 선원전과 종묘의 영령을 우러러 보고 인경봉(引慶峰)을 바라보고 신숭봉(神嵩峰)을 등지고 있어 산하의 울창한 정기가 모아진 곳이다”; 숙종의 명으로 편찬되어 헌종 때 증보, 수정된 『궁궐지』 內, 이만수, 『인정전상량문』 순조 4년(1804).

52) 황영웅 앞의 책, 2004, 206-209쪽.

풍수의 기본원리에 있어 청룡은 어깨높이가 좋아야 하며, 안대는 눈높이가 좋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안산은 청룡과 달리 하나로 붙어 있지 않은 다른 용맥의 산이기 때문이며, 이는 안산하고 입수두뇌와 혈장하고의 거리를 볼때 상대적으로 안산이 멀리 있기 때문이다. 즉, 혈장에서 현무정은 머리위로 쳐다보아야 하고 안대는 똑바로 바라보아야 균형적으로 맞는 것이다.<sup>53)</sup> 54) 이에 인정전에서 보이는 청룡안대와 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룡안대는 요도를 발생시키면서 혈장을 돌아 감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 주용맥인 종묘방면과 청룡맥으로 분벽이 일어나다 보니 요도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관쇄능력을 일부 상실시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정전의 입자좌 병오향에 청룡이 갑묘로 들어오면서 인정전의 정문에서 180도 가까이 지나오므로 약 75%정도의 관쇄가 유지되어 안정적인 보호사 역할을 한다.

둘째, 인정전과 일직선상에 있는 남산으로 안산으로서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현재 한옥마을이 위치한 곳이다. 남산의 정상에서 지형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다섯 개의 요도성 지각이 뒤에서 밀어 한옥마을 쪽에 안정처를 구성하는데, 한옥마을 중심에서 보면 좌측편이 요도성 지각이 안쪽으로 감아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측인 동국대학교 방면에서도 용맥의 기운이 밀고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국대학교 방면의 용맥은 정방향인 아닌 바깥쪽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남산 자체가 여러 용맥으로 나뉘어 혈장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화강암

---

53) 무릇 혈전(穴前)으로 저소(低小)한 산의 이름을 안산이라 하는데, 귀인이 책상을 앞에 두고 앉은 것과 같다는 뜻이다; 서선계, 서선술(김동규 역), 『인자수지(後)』, 명문당, 2008, 55쪽.

54) 안산의 높이는 눈썹과 가지런하고 낮으면 가슴정도인데, 어떤것은 얹어 놓은 가마술 같고, 어떤것은 붓걸이 같으며 어떤것은 누인 안석같고 어떤것은 두세번 겹쳐 있다. 『호수경(狐首經)』, “案高齊眉, 案低捧心, 或如覆釜, 或如傘架, 或如橫几, 或兩三重”; 장성규·김혜정 역 앞의 책, 2010, 343쪽.

바위로 결집된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즉, 남산의 한옥마을 방면은 창덕궁(인정전)의 일직선상의 중심적 안산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혈장을 지니고 있어 서로 조응하여 안대를 형성하는 위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창덕궁의 공간배치 특성상 궁궐전체의 안대역할을 하지 않는다.

#### IV. 주요전각의 풍수적 입지특성

창덕궁의 내, 외전 주요공간 입지 및 배치에 대한 연구는 우동선,<sup>55)</sup> 조재모,<sup>56)</sup> 박희용 외,<sup>57)</sup> 조진동,<sup>58)</sup> 기세황<sup>59)</sup>이 있으며, 외국인으로는 일본의 스기야마<sup>60)</sup>가 있다. 본 글과 관련한 공간배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창덕궁은 건립부터 완성하여 형성된 궁궐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재의 공간배치가 구성되었으며, 또한 궁궐의 입지가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전과 외전의 규모에 공간구성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세종 즉위년에 5간의 규모로 확장되면서 지리적 종법성과 조선실록 기록을 근거로 인정전이 대조전자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내용이 이어졌다.<sup>61)</sup> 그러나 본 글

55) 우동선, 「창덕궁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56) 조재모, 「창덕궁의 성장과정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1997.

57) 박희용·최종철·홍대형, 「창덕궁 인정전 일곽의 공간구성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권 11호, 2005.

58) 조진동, 「창덕궁의 공간 경계요소에 관한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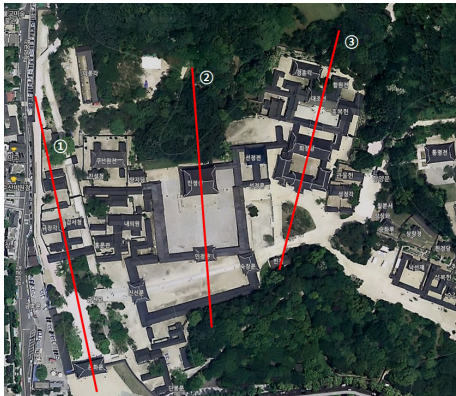
59) 기세황, 「20세기 초 창덕궁의 변형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헌합학교석사학위논문, 2014.

60) 杉山信三(스기야마), 「韓國の 中世建築」, 相模書房, 1984.

61) 스기야마, 같은 논문, p.101~102, 논의를 바탕으로 우동선, 조재모는 인정전이 서쪽으로

은 인정전과 대조전이 현재 위치와 변화가 없음을 전제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앞서 태종 창건당시의 전각들의 배치관계 추정과 조선후기 동궐도와 유사한 배치를 하며 현재의 인정전 위치에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한 선행 연구<sup>62)</sup>에 가늠코자 한다.

물론 각 구역내 구체적 공간 구성의 형태변화는 잦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1920년 대조전 재건시에도 내전의 기존 터보다 북쪽으로 올려 지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63)</sup> 그러나 주요전각의 이동적 변화가 공간배치 축 변형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위치한 전각의 지형만을 고려하여 풍수적 입지특성을 판단코자 한다.



〈그림 13〉 창덕궁 공간배치 축

옮겨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62) 인정전이 대조전 입지에 위치해 있었을 경우 인정전의 후면에 북행랑이 조성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실록에 인정전 바로 뒤에 산맥이 존재하는 점과 대조전 입지의 지형적 협소 등의 예를 들었다.; 박희용 외 같은 논문, 190쪽.
- 63) 1828년 경 제작된 『동궐도』에는 대조전 최상단에 집상전이 그려져 있으나 현재에는 해당 터가 대조전의 뒷마당이 되도록 북쪽으로 올려 지어졌다.; 조남선의 앞의 논문, 2008, 48쪽.

창덕궁의 지리체계와 축을 살펴보면 크게 세개의 축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축은 궁궐의 정문인 돈화문이 놓인 방향으로 서울의 진산인 북한산(삼각산)(837m)에서 주맥이 내려온 보현봉(714m)에 맞추어져 있다. 돈화문이 놓인 방향에서 바라보면 보현봉의 전경과 창덕궁의 주산인 응봉(매봉)(186m)으로 내려오는 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두 번째 축은 정전인 인정전이 놓인 방향이다. 본룡은 간인 방향으로 들어와 60도 분벽 후 입지방향으로 들어왔으며 앞쪽으로는 청룡의 안대가 보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창덕궁 인정전은 그 앞쪽으로 인정문이 가운데에 놓여져 있으며, 인정문을 나서면 좌, 우로 숙장문과 진선문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 인정전 내 반듯한 터와는 달리 숙장문과 진선문이 놓여진 터는 자연적 지형을 그대로 살린 사다리꼴 모양이며, 진선문을 나서면 돈화문과 연결되어 진다.

세 번째 축은 대조전과 희정당이 놓인 방향이다. 방향은 계좌(癸座)로 하여 해당 지형을 최대한 넓혀 공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보호사 역할을 하는 청룡안대가 전혀 관쇄를 하지 못하고 기운이 빠져 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내전 전체를 관장하는 출구인 숙장문과도 비대칭적 각을 이루고 있어 균형적이지 못한 구조를 하고 있다.

창덕궁 주요 전각의 표고는 “외전인 인정전 및 선정전(37~38m), 내전인 대조전 및 희정당(39~40m), 궐내각사 규장각지역(37m)로 5부능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sup>64)</sup>

창덕궁의 전체적인 배치는 응봉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산의 용맥을 살펴 그 용맥이 끝나는 혈장의 지점에 중요 전각시설을 배치하였다.

즉, 조선 창건기 경복궁과 창덕궁의 공간구성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경복궁은 정형적인 구성으로 중심영역(정전, 편전, 침전)이 남북 중심축선에

64) 문화재청 앞의 책, 2002, 41쪽.

의해 체계가 구성된 반면, 창덕궁은 지형에 순응한 자유스런 공간배치를 통해 각 영역별로 연계된 유기적인 공간조직으로 구성되었다.<sup>65)</sup>

## 1. 외전



〈그림 14〉 창덕궁 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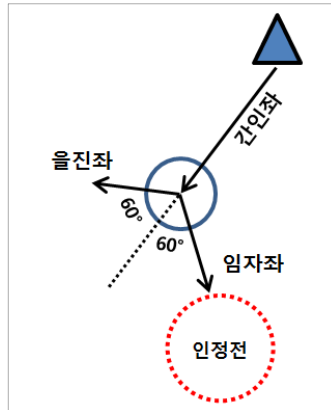
외전은 임금이 거처하는 전각 중 왕과 신하들이 만나 정무를 보거나 즉위식과 같은 정전으로의 주요기능과 각종 큰 행사나 잔치 등 중대사를 보는 궁궐의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외전의 중심에는 인정전이 자리 잡고 있다.

창덕궁은 이궁으로 지어져 전체규모에 있어 경복궁에 비해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에도 세부의 간수규모를 비교하면 내전에 있어서는 두 궁궐간 차이가 없다. 다만 외전의 규모에 있어선 창덕궁이 92개로 경복궁 212개에 비해 상당히 적은 간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경복궁이 정치를 위한 궁궐이자 재상중심의 신하들의 공간영역이 크게 차지한 부분이며 창덕궁은 내전에 치중되어 이궁으로서의 특징과 고려시대 이래의 관습적

65) 박희용, 「창덕궁 정전 영역의 구성과 운영」,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8, 152쪽.

인 생활공간으로서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규모가 있는 의식행사는 경복궁에서 거행되어진 반면 창덕궁은 일상적인 의식들로 행해진 점이다.<sup>66)</sup> 즉, 창덕궁은 이궁의 특성상 외전은 내전에 비해 작은 입지로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당시 창덕궁 지형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혈처에 배치되어도 문제될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외전터에 대한 앞선 선행 연구<sup>67)</sup>에서는 적절치 못한 입지처로 판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혈처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전의 공간적 배치는 인정전으로 향한 용맥의 혈터 위에 자리잡은 곳으로 주용맥에서 ① 우측으로 요도를 형성하며 밀고 내려와 두개의 가지로 분벽을 하여 ② 주용맥은 좌출맥으로 향하고 ③ 남쪽으로 내려온 용맥은 인정전으로 향한다.



〈그림 15〉 인정전 내룡맥 방향

66) 박희용 앞의 논문, 2008, 154~157쪽.

67) 의례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인 인정전을 혈처에 입지시킬 이유가 없으며, 용봉의 주룡이 인정전을 향해 행룡하지 않고 있어 좌우 청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정해, 「창덕궁의 역사적 전개와 전통입지과정」, 국학연구 24, 2013, p.407-408.

인정전 건물로 내려온 본룡은 간인 방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60도 분벽(합 120도)을 하여 임자와 방향으로 혈장을 이룬곳에 인정전이 세워졌다.

좌향에 있어선 선행연구<sup>68)</sup> 69)에서는 자좌오향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창덕궁 건립당시 좌향에 대한 기록에서는『필원잡기(筆苑雜記)』를 통해 추론컨대 임좌방향으로 추측할 수 있어<sup>70)</sup> 각기 다른 좌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건립당시 3칸으로 건립된 인정전을<sup>71)</sup> 세종즉위년에 정면 5칸과 측면 4칸의 형태로 새로이 중건되면서<sup>72)</sup> 현재의 좌향이 지금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이는 인정전의 내진고주에 사용된 10개의 초석형태가 임진왜란 등 여러차례 화재를 당했지만 후대 보수에 따른 변형되지 않고 당초 증축된 건물계획시 부터 유지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sup>73)</sup> 74) 좌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측정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용맥의 변화지점마다 직접 확인한 좌향값을 기준으로 분벽각을 파악하여 혈장 형성위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즉, 내룡맥의 정점에서 정확한 분벽각을 이루면서 용맥이 정혈로 들어온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정전의 건물이 적당하게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용맥이 회전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앞전에 분벽을 거듭하면서 그 자체기운이 분산되면서 혈장 부분이 결집되지 못하고 약한 것이 흠이라 할 수 있다.<sup>75)</sup> 상대적으로 대조전의 위치가 안정적인 자리가 되어 있어 분벽에

---

68) 조남선 앞의 논문, 2005, 44쪽.

69) 박정해 앞의 논문, 2013, 415쪽.

70) 박정해 같은 논문, 2013, 415쪽.

71) 太宗實錄 10卷, 5년 10월 19일 辛巳.

72) 世宗實錄 1卷, 즉위년 9월 10일 丁巳.

73) 문화재청, 『창덕궁 인정전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8, 70쪽.

74) 박희용 앞의 논문, 2008, 48-49쪽.

75) 分壁枝(분벽지)는 적을수록 안정 건실하며, 많을수록 불안정 허약하므로  $\theta = \angle 60^\circ$  兩分

따른 지형적 혈장 기운은 대조전에 비해 약하다 볼 수 있다. 그러나 백호는 인정전 위쪽에 형성하여 잘 감아 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로 백호 바깥쪽으로 요도가 잘 발달되어 백호를 잘 지탱하면서 혈터의 안쪽으로 꺾어서 들어왔다. 분벽을 하며 진행되진 않았지만 회전을 하면서 감아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 지각으로 볼 수는 없으며 백호로써 보호사의 제 역할을 하였다.

즉, 백호맥이 두터워 백호에너지가 충분하였으며, 청룡도 어느 정도 감은 흔적이 있어 양택이 아닌 음택의 자리로서도 충분한 풍수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복원하는 과정에서 산을 깎은 자리와 예전에 조성을 하면서 산을 쌓은 흔적이 있다. 그렇다 보니 맥상 위에 담장을 쌓은 부분도 보이며, 용맥 바깥쪽으로 주로 담장을 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백호맥의 중간부분을 보면 담장이 구부러져 쌓은 부분이 두 곳이 있는데, 모두 용맥이 회전하는 지점에 중심을 타고 담을 쌓아 이어졌다. 그런 이유로 담장 자체가 꺾여 담 안팎으로 정돌하지 못하고 좋은 가상의 담장 형태가 되지 못하였다. 긍정적인 면은 분벽이나 과협하는 용맥의 자연적 훼손을 하지 않은 점은 오늘날의 무분별한 택지개발과는 상대적인 부분으로 자연과 순응하는 풍수지리사상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며, 반대로 너무 자연훼손을 고려하다 보니 궁궐 곳곳에 담장이 굴곡됨에 따라 양택적 건축물에 따른 함정적 요소부분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축을 쌓는다든지 함한 지리적 단점을 비보하여 보완하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담장은 맥을 피하여 놓아야 하며 혈장을 누르면 안된다. 이런 부분은 향후, 현 궁궐의 보존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복원이나 재단장 시에 담장의 위치를 맥상의 안쪽으로 들여 놓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擘(양분벽)과,  $\Theta = \angle 90^\circ$  3분벽이 최선 분벽이다.; 황영웅 앞의 책, 2004, 249-261쪽.



〈그림 16〉 청룡(좌) 및 백호(우)지점 담장모습

청룡 측 담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담장이 굽어 꺾인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차라리 원형담장으로 만들어 놓고 비보를 통한 정원설계로서 산세에 맞추어 만드는 구조로 설계하여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었으면 한다.

## 2. 내전



〈그림 17〉 창덕궁 내전

외전이 왕과 관료들이 만나는 공간이라면 내전은 왕과 왕비가 일상적으로 기거하며 활동하는 공간이다. 창덕궁 내전의 대표적 전각은 대조전과 희정당, 선정전 등이다. 내전의 공간적 배치는 창덕궁 내의 동남쪽을 향하여 두텁게 뻗은 주용맥에서 일자문성사의 형태를 이루며 십자맥 형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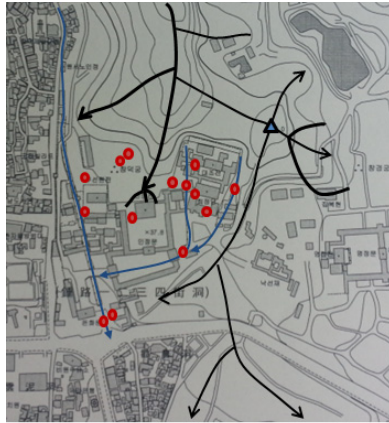
뺨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앞서 대조전의 주룡에 대한 연구에서 박정해는 대조전은 안쪽에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룡에서 횡룡입수(橫龍入首)한 용의 지기를 전달받는 곳에 입지하는 곳으로 긍정적으로 기술하였으나<sup>76)</sup> 이보다 앞선 조남선은 횡룡입수로 보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할 귀성(鬼星)이나 기(氣)를 응축하는 봉우리를 찾아 볼 수가 없다 하였다.<sup>77)</sup> 이에 일자로 들어오는 지형적 위치가 양택지로서 가능한지에 대한 주된 판단요소를 확인코자 한다. 첫째, 용맥의 지표 중 발달되어 우뚝 솟아 있는 입체(집합)구조의 구성요인과 둘째, 과맥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용맥 기운의 손실여부를 판가름하는 주된 요소이다. 즉, 용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과맥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이며, 등고선지도 상에 보면 끊어진 자리 없이 등고선 간에 용맥이 발달된 두지점 사이로 서로 이어지면 된다.

우선 등고선지도를 살펴보면 첫째, 등고선 선상이 50~54미터가 된다. 둘째, 등고선상의 일자맥 격의 높고 낮음의 판단기준으로 등고선지도 내 선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일자문성사의 역량이 다른데, 등고선 상엔 하나밖에 없어 큰 역량으로서의 작용력은 부족해 보인다. 관산을 통한 확인결과로는 첫째, 큰 과맥이나 과협 없이 일자로 들어왔기에 용맥 상의 기운 손실이 적어 양택지로 일단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등고선상이 하나밖에 없어 큰 역량으로서의 작용력은 부족하나 등고선 지도와 마찬가지로 그 용맥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 하단 능선부분에 양택지로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즉, 용맥이 일자문성사로 들어오기 전, 역량의 기운이 크게 실려 있음을 증거하며, 입체적 일자문성사로 형성되고 그 뒤쪽으로 두 개의 요도가 형성되어 받쳐주고 있기에 집터로서 좌를 놓아도 되는 것이다. 반대방향에 요도성 지룡맥이 나가 있다는 것은 등고선지도상과 달리 하나의 포(抱)<sup>78)</sup>가 있다는 증거로 이는 50미터 등고선 내에 한 등고선이 더

76) 박정해 앞의 논문, 2013. 406쪽.

77) 조남선 앞의 논문, 2008. 49쪽.

나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기운의 역량은 예상보다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중간에 용맥이 발달되어 포가 하나 일어나면 과협지점이 있더라도 풍수적으로 적합한 입지의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8〉 동궐도형 기록도에 의한 창덕궁의 우물 위치<sup>79)</sup>

그러나 내각의 전체면적을 횡대로 넓게 포진하여 모든 면적을 활용하다 보니 계곡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자연 및 인위적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작용되고 있다. 계곡바람의 영향은 1917년 11월10일 창덕궁에 발생한 아홉 번째 화재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사항으로 당시 매일신보에 올려진 기사내용을 보더라도 ‘북서풍의 골바람’으로 인해 상궁숙소의 화재가 내전

78) 포는 용맥이 발달되어 우뚝 솟은 山体의 구조를 하여 양기를 향하여 끌어 안는 곳을 말한다.

79) 문다미, 「전통 궁궐 공간의 수체계에 관한연구」, 2000. 상명대석사학위논문. 창덕궁 우물위치를 바탕으로 논자 제작성; 일반적으로 우물의 위치를 통해 수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자연지형에 따른 등고선 고저차(高低差)와 함께 수계(그림의 파란색 선)의 흐름을 가능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체로 옮겨 붙는 큰 화재로 전소되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응봉 아래 복치혈에 축음이 감히 침범하였도다. 첫겨울 처음 추위 맹렬한 서북풍이 북한 인왕으로부터 경성 천지를 흔들던 십일의 오후 다섯시 삼십분 창덕궁 대조전의 왕비전하 처소되는 지밀 옆 여관대령처소의 온돌로부터 불이 일어나며 마침 불어오는 서북풍에 대조전 전부를 화염으로 싸가지고 이왕전하의 기거하옵시는 흥복헌에 옮겨 붙어 즉시 남편복도로 양심합 회정당까지 전소하게 되었더라...<sup>80)</sup>

또한 자연수계의 물줄기와 수맥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여러 피해요소(形·沖·破·害·殺)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물의 위치를 통한 수맥을 보더라도 대조전 주변 밖으로 넓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마주하는 안산 또한 켄내각사 내 빈청의 뒤를 향하여 안착되지 않은 청룡맥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뒤 능선 너머로는 남산의 서쪽 봉우리를 향하고 있어 서로 마주하여 안정을 취하는 안산(안대)으로 보기가 어렵다.

차라리 대조전자리에서 자좌오향으로 건축을 하면 안산도 가까이 정돌하게 마주보게 되며, 인정전으로 등을 돌린 백호(인정전의 청룡)가 달아나는 모습을 취하지 않게된다. 청룡도 십자맥의 기운을 받아 청룡의 어깨부분도 잘 발달되어 왕성하므로 모든 사신사의 국이 안정되어 험터의 힘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와 정전의 주요기능을 하는 인정전의 자리로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초기 건축 당시에 궁궐은 기운의 역량을 보기에 앞서 면적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현 궁궐터에서 엿볼 수 있으며, 또한 내전 전체가 일자맥에다 입수 좌를 두다보니 청룡의 끝부분이 멀어지고 들리는 꼴이

80) 「매일신보」, 1917.11.11.

되어버렸다. 만약, 횡적인 궁궐설계가 아닌 종적인 형태로 지어졌다면 안팎 공간이 협소하고 본관자리가 안되어 창덕궁 궁궐증축 시에도 문제의 요지가 되었겠지만, 혈장 기운의 중심과 청룡에 가까운 종적인 형태의 주요 건축물만 들어섰다면 역사적으로나 그 가치 면에 있어서도 지금의 인정전 자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전위치 내 주요 건물 중 하나인 선정전<sup>81)</sup>은 인정전과 마찬가지로 입자좌 병오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조선후기 순조 연간부터 회정당이 편전 역할을 하면서 선정전은 잘 사용하지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풍수적 입지로 보면 선정전을 중심으로 위쪽 물길에 흘러 내려가는 지점에 지어져 자연수계상 물길위에 놓이게 되어 기피되는 위치에서 상관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sup>82)</sup>에서도 언급된 부분으로 창덕궁의 터가 좁아 활용범위적 면적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건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 3. 궐내각사



〈그림 19〉 창덕궁 궐내각사

81) 편전은 정전의 뒤에 위치를 두고 있으나 경복궁의 선정전은 내전 내에 위치하여 있다. 창덕궁 건립시 광한루가 있던 자리로 추정하기도 한다.

82) 조남선 앞의 논문, 2005, 51쪽

궐내각사는 왕과 왕실을 보좌하는 궐내 관청으로 궁궐 외부에 자리하고 있던 육조 외에 왕을 근저에서 보필할 수 있도록 관원들의 관사인 빈청(賓廳), 대청(臺廳), 승정원(承政院), 사옹원(司饔院), 내반원(內班院) 등의 관청들을 말한다.

인정전 동측에 위치한 궐내각사의 공간적 배치는 내전과 외전 사이의 자투리 공간으로 위치는 내전의 아래 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인정전과 대조전으로 내려온 용맥의 기운이 미치지 못하여 풍수지리적 입지조건에서는 다소 부족한 지역이다. 이곳은 내전의 좌, 우 수계가 만나는 지점이자 수맥의 영향도 크게 미치고 있는 위치로서 건축물의 입지로는 한계가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선 초 양궁(兩宮)운명을 명확히 구분지었던 시기에 건립되면서 궐내각사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은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정궁인 경복궁에서는 외전과 궐내각사에 치중되었던 것과 달리 창덕궁은 이궁의 특성상 내전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궐내에서 좋은 입지를 선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창덕궁의 산계와 수계를 중심으로 한 풍수적 입지와 주요전각의 입지특성에 대한 용맥의 흐름방향 및 국세에 대한 실측 자료를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 있어선 각 전각에 안산으로 취할 사격이 없어 인정전의 안산 부재(不在) 및 청룡안대를 안산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대조전은 안산 및 백호 사격에 문제를 들어 창덕궁 전체에 보국이 갖춰지지 않은 입지로 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용맥의 흐름상에 동일한 취약점도 발견할 수 있었으나 형기(형세)적 풍수입지조건에 따른 안정적 형성의 사신사 조건을 갖추어 혈장을 이루고 있는 궁궐지임을 확인하

였다. 즉, 혈맥이 응집된 혈장의 터가 궁궐 내 존재하는 양택지이다.

첫째는 외전 내 인정전으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청룡안대가 주변 국세에 의해 해당 혈장을 완전히 감싸지는 못했으나 청룡으로서의 역할과 실질적으로 남산(현, 한옥마을 위치)을 안산으로 마주하여 안정적으로 관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둘째는 내전 내 대조전 터로 본맥이 내려오는 도중에 과맥현상을 보이며 약해진 모습을 하고 있으나 창덕궁 하단부에 이르러 강한 역량을 발휘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 증거로 일자문성사와 십자맥 형태의 용맥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 태생적으로 북악으로 향한 우출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용맥이라 과맥현상 등의 증거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다소 부족한 기운을 내비치고 있고 전체 궁궐터가 협소하여 주요 전각의 구역구분이 정돌하지 못한 입지적 한계로 인하여 사신사의 조건과 수세의 조건이 전체 건축물에 일치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궁궐건립 시 고려해 볼 수 있었던 공간배치의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인조전 내 굴곡된 담장을 함하지 않도록 정돌하게 배치하여 좋은 가상을 갖추도록 하며 둘째, 궐내의 기운이 설기되지 않고 백호수를 거수할 수 있도록 돈화문 및 주변 담장과 문들의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조전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공간배치를 좌향으로 하여 내전의 규모를 줄이고 종대로 배치토록 한다면 안착되지 않은 안산의 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형기에 의한 좌향 조정으로 백호맥을 안정된 기운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룡안대의 관쇄로 격에 맞는 사신사를 갖추게 될 것이다. 넷째, 조선시대 중시되었던 비보풍수에 의한 내수체계의 보완을 위해 내전 앞쪽의 연못조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83)</sup> 관쇄되지 않는

---

83) 궁궐 건립시 '광연루'라는 연못을 완성하고(『조선왕조실록』 태종 11년 태종 6년(1406) 4월 1일) 사용했다는 기록이 태종~세종대에 있으나 고증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선행연구에선 집수시설 및 자연수계 등을 고려하

수구의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금천교에서 합류한 물들이 산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곧바로 흘러 내려가면서 쇠하는 기운을 막아주는 거름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창덕궁이 다소 단점의 요인을 지니고 있지만 풍수지리적 입지에 따른 궁궐 내 가장 주요 건물인 인정전과 대조전의 터는 정돌한 입수맥의 기운과 안대를 마주할 수 있는 사신사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혈장의 중심에 안착하여 범궁 이상의 실효성을 지닌 궁궐입지로서 충족된 곳이라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에 현존하고 있는 5대 궁궐 중 창덕궁에 국한되어 분석하였으며 용맥의 흐름에 따른 국세 및 혈장 등의 입지분석에 제한을 두었다. 차후 전체 궁궐로 확대한 비교분석과 시대적 주요사건에 따른 풍수입지와의 관계성에 대해 시도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창덕궁, 궁궐풍수, 창덕궁 풍수, 풍수지리, 궁궐, 풍수

(논문투고 : 2016.6.2 / 논문심사완료 : 2016.6.14 / 논문게재 확정일 : 2016.6.18)

---

여 지금의 선정전자리(조남선 앞의 논문, 2005, 50-52쪽)와 건양문(建陽門)밖 영역으로 (박희용 앞의 논문, 2008, 46쪽) 추정하는 정도이다.

## 참고문헌

- 강환웅, 「조선초기의 풍수지리사상연구」, 세종대 박사학위 논문, 2003.
- 김기덕, 「고려시대 개경과 서경의 풍수지리적 고찰」, 『한국사연구』 127, 2004.
- 김기덕, 「고려시대 개경의 풍수지리적 고찰」, 『한국사상사학』 17, 2001.
- 김기덕, 「고려시대 강도 궁궐의 풍수지리적 고찰」, 『한국중세사연구』 제31호, 2011.
- 김동규, 『인자수지(후)』, 명문당, 2008.
- 김두규, 『풍수학대사전』, 비봉출판사, 2005.
- 문다미, 「전통 궁궐 공간의 수체계에 관한연구」, 상명대석사학위논문, 2000.
- 문화재청, 『창덕궁 인정전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8, 12.
- 문화재청, 『창덕궁·종묘 원유 조사』, 문화재청, 2002.
- 박정해, 「창덕궁의 역사적 전개와 전통입지과정」, 『국학연구』 제24집, 2014.
- 박재희 · 황영웅, 「국립서울현충원의 풍수지리적 고찰」, 『중앙사론』 제41집, 2015.
- 박희용 · 최중철 · 홍대형, 「창덕궁 인정전 일곽의 공간구성 변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1권 11호, 2005.
- 박희용, 「창덕궁 정전 영역의 구성과 운영」,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서문중, 「서울의 지세와 궁궐 입지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연구」, 한성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궁궐지』, 2000.
- 양형석 · 홍성서, 『착맥부·동림조담 역해』, 학국학술정보, 2013.

- 우동선, 「창덕궁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1991.
-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46, 1980.
- 장성규·김혜정 역, 『완역 풍수경전』, 문예원, 2010.
- 장지연, 「고려, 조선초 국도풍수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 조남선, 「창덕궁의 풍수지리적 입지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조재모, 「창덕궁의 성장과정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 조진동, 「창덕궁의 공간 경계요소에 관한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지종학, 「경복궁·청와대 입지의 비판적 분석과 대안모색에 관한 연구」, 광운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진용미, 「창덕궁 후원의 배수체계 특성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최원석, 「왕도풍수」, 신편 강화사 中(문화와 사상), 2003.
- 황영웅, 『풍수원리강론』, 동국비전, 2004.
- 홍순민, 『우리궁궐이야기』, 청년사, 2005.
- 杉山信三(스기야마), 「韓國の中世建築」, 『相模書房』, 1984.

<기타자료>

네이버지도(<http://map.naver.com/>)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매일신보 기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A Analytical Study on Feng-Shui Location of Changdeokgung

Park, Jae-hee & Kim, Ki-D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location focused on the Feng-Shui's point of view of the Changdeokgung in Seoul. Methodologically, this research utilizes analytical tools of mountains flow direction and energy of earth. In order to realize a variety of measured data of the Changdeokgung's landscape, it should be needed to satellite maps of the Naver and contour maps of the Korea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Injeongjeon has no the "Ansan" or substitution of the "Ansan" in Changdeokgung. Moreover, Deajojeon was regarded as an incomplete location due to lack of the "Ansan" or the "Baek-Ho" of right position in Changdeokgung.

This study showed that the Changdeokgung as a palace could be the "Myung-Dang" with the "Sasinsa" (Hyun-Moo, Chung-Ryong, Baek-Ho and Ju-Jak) regardless of weak points in flow direction of the mountains.

As the results, the Injeongjeon has been the "Ansan" energy provided by the "Cheung Ryong-Andae" and the "Nam-San" (current location is Hanokmaeul). Also, the "Deajojeon" has been energy of the "Il-Ja-Mun-Sung" and the "Ship-Ja-Maek" even though the

“Yong-Maek” of Changdeokgung showed the “Gwa-Maek” (This is phenomenon of disconnection chains of the mountains).

Conclusively, the “Injeongjeon” and the “Deajojeo” in the Changdeokgung has been the best location as a palace from the view point of the “Sasinsa” of Feng-Shui.

**Key Words** : Changdeokgung, Palace Fengshui, Changdeokgung  
Fengshui, Pungsujiri, Palace, Fengshui

